

로스앤젤레스 폭동과 동포 사회의 미래

장 태 한*

서론 : 3중고의 한인 사회

- 1) 막대한 재산피해
- 2) 정신적 충격
- 3) 무법자로 왜곡 보도한 미 주류 언론

사이구 폭동 :

- 1) 미 최초의 다인종 폭동 (뉴욕과 타 대도시)
- 2) 폭동의 원인은 60년대와 동일
 - a. 흑백간의 빈부차이 (높은 실업률)
 - b. 교육 시설과 질 (흑/백)
 - c. 경찰 과잉 진압과 불신
 - d. 신보수 세력의 국방비 증액과 사회복지비 감면 정책
 - e. 다인종 사회와 탈 산업화 현상
- 3) 미국은 잔인한 인종 폭동의 역사 -- 인종 폭동의 재발

교훈 :

- 1) 정치력 신장의 중요성 절감
- 2) 세대간의 갈등의 고리를 풀고 2세들의 정체성 확립
- 3) 한인 교회의 거듭남
- 4) 타민족과 더불어 사는 지혜 (인종문제의 중요성 인식)
- 5) 아시안의 대표로 부상한 한인들

*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소수민족학: Ethnic Studies

재미동포의 역할론 :

- 1) 민권단체 조직 :
 - a. 미국내 정치력 신장
 - b. 로비활동으로 한-미 관계에 중요한 영향력 행사
- 2) 한국의 패쇄적/편협적 시각 및 의식 개혁에 일조
- 3) 한국은 친정이 아니고 동반자적 관계로 정립 (상부상조의 관계)
- 4) 한국에 통일에 기여 (인도주의/ 냉전주의 탈피/ 동질성 회복)

재미 동포 사회의 미래 :

- 1) 정치력 신장 : 민권단체 조직 및 활동
- 2) 교회의 거듭남 : 종교/사회/경제/문화/정치
- 3) 1·5세/2세들의 확고한 정체성 확립

1. 서 론

1992년 4월29일, 다민족 사회의 모범이라고 스스로 자랑했던 “천사의 도시” 로스엔젤레스는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무법천지로 순식간에 변하면서 약탈, 방화, 총격전 그리고 살인이 도처에서 자행되었다. 4.29 폭동으로 한인들은 3중고를 경험했다. 첫째, 2,280여개의 한인 업소들이 전소 또는 부분적 피해를 당했으며 약 4억만불 이라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폭동 총 피해의 40%). 둘째, 미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열심히 살아온 한인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 나지 못하고 아직도 폭동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 셋째, 미 주류 언론들은 한인들을 “무법자”로 왜곡 보도하여 한인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부각 시켰다. 또한, 한-흑 갈등이 폭동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기도 하여 한인들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 시켰다. 폭동 발생 6년이 경과된 지금 LA의 한인 사회는 지속되는 불경기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IMF 위기까지 겹쳐 한인 사회는 심리적인 부담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1992년 4월29일 타지역의 한인들과 한국인들은 로스엔젤레스에 사는 재미 한인들이 왜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수 없었다. 일부 한국 대학생들은 반미 구호를 외치면서 인종 폭동에 항의하는 데모를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한국 신문 보도를 접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여 생긴 결과이며, 역사 의식 부재로 발생한 오류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모습은 민주주의, 자유, 평등등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반면, 일부 진보 학생들의 미국은 마르크시즘 (Marxism) 사상이 가르치고 있는 제국주의 그리고 독점 자본주의의 계층간의 갈등 극대화. 이 두시각은 모두

극과 극으로 미국의 본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 논문의 주목적 중의 하나는 미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재조명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동반자, 경쟁자 그리고 주한 미군을 파견하고 있는 미국의 허와 실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연적인 과제이며 이제는 피상적인 미국의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역사 의식을 고취 시켜야 한다. 미국에 이민와 살고 있는 우리는 미국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우리의 확고한 위치도 파악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들은 4월29일 발생한 폭동을 사이구로 부르고 있다. 4.19 학생 혁명과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사이구로 불려진 로스앤젤레스 폭동은 재미 한인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못할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이구 폭동으로 한인 사회는 많은 고통을 감수했다. 그러나, 사이구는 한인들에게 새로운 자각과 교훈을 던져 주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해 주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사이구 폭동이 우리에게 던져준 교훈은 무엇이며, 모국과 재미 한인 사회의 관계 및 재미 동포의 새로운 역할, 그리고 재미 한인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이구 폭동은 우리에게 재미 한국인으로 다시 태동하는 계기를 주었으며 미국에서 재미 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정치력 신장, 코리아인 아메리칸의 자아의식 확립, 모국 지향적인 삶 지양, 그리고 타민족과의 연대 및 관계 유지 등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2. 미국 최초의 다인종 폭동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미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바로 인종 문제에 대한 역사적, 구조적, 그리고 정치적 의미를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것은 "인종" 문제가 미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모순을 복합적으로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제, 정치, 그리고 외교 정책의 주요 부분이 백인 우월주의 사상과 백인들의 "인종관"에 의해 결정됐고 시행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면 "인종 문제"의 중요성을 새삼 이해하게 될 것이다.¹⁾

4.29 폭동은 우선 미국 최초의 다인종 폭동 사건이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잔인한 인종 폭동의 역사가 있는 나라로서 주로 역사적으로 흑백간의 갈등이 폭동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4.29 폭동은 흑인, 백인은 물론 한인, 멕시코인, 아시안, 라티노등 다인종 모두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폭동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1992년 4월 30일 오후 6시부터 5월 3일 새벽 5시까지 실시됐던 통행금지 기간중 체포된 인종 분포는

1) 미국의 인종관 그리고 흑인의 역사 개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참고 문헌 참조. 장태한, 흑인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 경제 신문사, 1993; "인종"이 미국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 됐다. Michael Omi and Howard Winant,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60s to the 1980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6; Paul Gilroy, There Ain't No Black in the Union Jac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Cornel West, Race Matters. Boston: Beacon Press, 1993.

4.29 폭동이 다인종 폭동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라틴계 45.2%, 흑인 41%, 그리고 백인 11.5% 나머지는 기타).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주요언론은 폭동이 처음 발생했을 때 한인들과 라티노의 피해 상황은 거의 보도하지 않은 채 사우스신트럴의 흑인 지역만 집중 보도했다.³⁾ 차츰 한인들의 피해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미주요 언론들은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한-흑갈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마치 한흑 갈등이 4.29 폭동의 주요 원인처럼 취급하여 한인들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필자도 미주요 언론도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의 공통된 질문은 “한인이 흑인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왜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 “한흑 갈등과 한인 피해 상황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등 주로 한. 흑 갈등에 취재의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⁴⁾

3. 잔인한 인종 폭동의 역사

4.29 폭동은 전혀 예기치 못한 경악적인 인종 폭동이었는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사건이었는가? 역사 의식 부재로 우리는 마음과 시각이 흐려져 현실을 직시 못한 과오로 경악을 느낀 것은 아닌가? 19세기와 20세의 미국에서는 수많은 인종 폭동이 발생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폭동은 1965년 8월 무더운 여름 LA에서 발생한 왓츠 폭동 (Watts Riots)이다. 왓츠지역은 4.29 폭동이 발생한 사우스센트럴 지역의 일부로 흑인 빈민가였다. 왓츠 폭동을 분석한 미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 (Clifford Geertz)는 미국인들의 역사 의식 부재를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모른 채 맹목적인 삶을 영위해 왔다.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미국의 진실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⁵⁾ 이처럼 사회학자인 기어츠는 왓츠 폭동을 미국 사회의 본질로 규정하면서 미국인들의 인종 폭동의 역사 의식 부재를 꾸짖고 있다.”

1965년 발생한 왓츠 폭동을 조사한 맥콘 보고서 (McCone Commission Report)는 왓츠 폭동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지적했다. 첫째, 경찰과 지역 주민과의 오해로 인한 잦은 마찰이 경찰에 대한 불신 풍조를 고조 시켰다. 즉 경찰이 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

2) Los Angeles Times, May 21, 1992.

3) 한국일보 미주판 1993년 4월3일자 보도. “하버드 대학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주요 방송국들이 일반 뉴스를 통해 유색 인종에 관한 사건을 취급할 경우 65%는 흑인, 23%는 라틴계 그리고 9%만이 아시아인들에 대한 기사인데 대부분은 범죄자, 범죄 희생자, 용의자, 자연 환경 희생자 등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쳐졌다.

4) 장태한, 흑인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한국 경제 신문사, 1993.

5) Violence in the City -- An End or a Beginning? A Report by the Governor's Commission on the Los Angeles Riots. December 2, 1965.

나라 흑인가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흑인 지역 주민들에게 비쳤다. 둘째, 낙후된 교육시설로 흑인 학생들은 백인 학생들에 비해 훨씬 질이 낮은 교육을 받았다. 셋째, 직업 교육 훈련의 미비로 흑인들이 취업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즉 낙후된 교육 시설과 미비한 직업 훈련 시설이 경제적인 빈곤을 가져왔고 높은 실업률과 지속되는 빈곤과 흑백간의 점점 넓어지는 계층간의 격차등이 흑인들의 불만을 고조시켰으며 폭동을 일으킨 주요 원인 이었다는 설명이다.

인종 폭동을 연구하고 분석한 보고서들은 한결같이 폭동 재발을 경고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59년 발표된 민권 보고서 (Civil Rights Commission Report)는 미국 사회가 두개의 도시로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1968년 발표된 커너 커미션 (Kerner Commission) 민권 보고서는 “미국 사회는 두개의 사회로 분열되고 있다. 하나는 백인 사회 또다른 하나는 흑인 사회이다. 흑백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시정되지 않으면 폭동이 재발할 것이다”라고 다시 경고했다.

27년후의 로스앤젤레스 시는 1965년 보다 오히려 흑백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 됐으며 사회적 불안 요소가 증가하였다. 왓츠 폭동의 재연이라고 할 수 있는 4.29 폭동!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왓츠 폭동의 교훈을 잊어 버렸던 것이다. 아니, 한인 이민자들은 흑인 폭동의 역사적 의미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흑자는 4.29 폭동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쉽게 살아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미래를 진단하고 있다. 4.29 폭동을 쉽게 망각한다는 것을 폭동이 재발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⁶⁾ 미국인들은 이러한 암흑의 역사를 쉽게 망각한 반면 1965년 이후 미국에 이민온 대부분의 한인들은 미국의 이러한 암흑 역사를 알지 못한 채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에 정착했다. 잘살아 보겠다고 미국으로 이민온 대부분의 한인들은 미국의 좋은 면만 보고 어두운 면을 보지 못한 채 물질주의에 탐욕된 생활을 해온것은 아닌가? 사이구 폭동 이후 로스앤젤레스의 한인들은 이러한 미국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사회의 본질 이해는 미국에 사는 재미 한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의 본질 이해는 미국의 역사 특히 인종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때 가능하다. 물론 시각적 차이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고 신봉하는 미국의 본질은 백인들의 눈에 비친 그리고 백인들에 의해 기록된 백인들을 위한 단편적이며 피상적인 모습이라는 자각이 앞서야한다. 이러한 편파적인 미국의 모습을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무조건 수용한 우리의 역사적 물이해는 결국 4.29 폭동때 엄청난 재난을 우리에게 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

백인의 눈에 비친 미국은 “기회의 나라” “민주주의의 종주국” “능력 본위주의 사회” “자유, 평등, 정의의 나라”로 표현될 수 있다.미국 헌법은 만민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계 유래에 찾아 볼 수 없는 평등 사상을 미국은 처음부터 모두에게 부여했다. 미국은 왕정 정치를 경험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이념하에 국가를 건립한 최초의 근대 국가임에는

6)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반 불법 이민법인 주민 발의안 187을 1994년 11월 선거에서 통과 시켰으며, 소수 민족 보호법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이구 폭동이 발생한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았는데 백인 남성 주도로 반이 민법이 통과 됐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사이구 폭동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플럼이 없다. 222년의 짧은 역사와 왕정사가 없는 미국이 “미국의 특수성 (American Exceptionalism)을 강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 싶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절대 권력의 횡포에 시달리던 많은 세계인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세계도처에서 이민자들이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정착했다. 미국으로의 이민 절정기는 1860-1920년으로 무려 25 million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이민 왔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독재 정권이 싫어 미국으로 건너온 한인들도 바로 이러한 미국 이민의 역사와 부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또다른 얼굴 즉 어둡고 알려지지 않은 암흑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잔인한 인종 폭동의 역사”는 미국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만인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미국 헌법은 명시하고 있으나 노예제도가 실시된 미국의 양심과 민주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히 대부분의 백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노예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강조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피부 색깔이 하얀 백인들은 자유인으로서 미국식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온갖 자유와 물질주의의 풍요를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단지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로 흑인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일생을 마쳐야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본질이다. “피부 색깔”로 사회, 정치, 경제적 위치가 결정되는 사회 미국 사회의 핵심이며 근원이다. 누가 “백인인가?”는 누가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처럼 “피부 색깔” 또는 “인종”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위치를 결정하는 절대적 변수 역할을 했다.⁷⁾ 참고로 부언하면 한인들 또한 동양인들은 인종적으로 열등한 인종으로 평가받아 법으로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을 박탈했다. 겨우 1952년에 와서야 한국인들도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었으며, 재산권도 부여받았다는 인종 차별의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다고 생각된다. 즉 필자는 미국의 본질을 인종 차별의 역사라고 규정짓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적 고찰과 시각이 재미한인 사회에서도 생기기 시작했으며 4.29 폭동의 피해자인 한인들의 시각과 인종 차별의 피해자인 흑인의 시각, 그리고 인종 차별을 당한 소수민족의 시각의 미국 역사는 일맥상통 하다는 자각을 재미한인들도 서서히 하기 시작했다.

4. 4·29 폭동이 재미한인 사회에 미친 영향과 교훈

4·29 폭동은 한인들에게 역사 의식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지금까지 한인 사회는 무작정 외적 성장만 했으며 구체적인 목적 또는 방향 없이 표류한 것은 아닌가? 라는 자각을 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4·29 폭동 이후 분명해진 것은 우리도 “소수민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많은 한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백인”인 것처럼 착각하여 흑인, 라틴계 또는 타 아시안들을 멸시하고 업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한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로 미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김창준 연방

7) 인종 개념에 (centrality of race)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 참조. Michael Omi and Howard Winant,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From 1960s to 1980s. Routledge, 1986; Tomas Almaguer, Racial Fault Line: The Historical Origins of White Supremacy in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94.

하원은 “한인들은 흑인 또는 라티노보다 백인들과 비슷한 점이 많아 백인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유세하는 것을 여러번 들은 적이 있다. 피부 색깔은 유색 인종인데 백인 행세를 해온 한인들 흑인과 라틴계의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어쩌면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이 적당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4·29 폭동은 분명 재미 한인 이민 100년사중 가장 힘들고 쓰라린 비극이었다. 그러나 얻은 교훈도 많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미안하나 재미 한인 사회로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얻은 수확도 많기 때문이다. 4·29 폭동전 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은 한인들이 누구인지 잘 몰랐다. 중국인과 일본인이 동양인의 대명사로서 한인들의 존재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4·29 폭동이후 한인들은 오히려 동양계 전체를 대표하는 민족으로 급부상 했다. 이제는 다민족 모임이 열리면 중국계나 일본계보다는 한국인을 초청한다. 필자도 동양계 대표로 다민족 회의에 여러번 초청되어 참석했다. 한인들의 입지가 그만큼 크게 향상 된 것을 의미한다.⁸⁾ 물론 한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총을 마구 쏘아대는 무법자”의 한인 이미지는 분명 부정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한인의 이미지를 긍정적 또는 포괄적인 이미지로 개선시키는 일이다.

사회학자들이 실시한 “미국 사회 인종에 대한 호감도” 조사 통계에 의하면 한인에 대한 호감도는 30개 인종중 1926년엔 29위, 46년 27위, 56년 30위, 66년 27위, 77년 30위 등으로 최저 수준이었다.⁹⁾ 이것은 미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시각이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한국 전쟁 그리고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1972년부터 1983년까지 미국의 TV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MASH 또한 미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은 분명 인종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이다. 아니 인종 차별과 소수민족에 대한 노동 착취로 오늘의 미국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미국이 자랑하는 “민주주의” “자유” “평화” “평등”은 백인 주도의 주류 사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소외된 주변인들 즉 흑인, 라틴계, 아시안 아메리칸, 인디언 등이 자신들의 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가 정착 됐고 발전할 수 있었다¹⁰⁾는 역사적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은 진정 만민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지상의 낙원인가? “인종 폭동은 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가?”

정치력 부재를 실감하면서 정치력 신장의 필요성을 다시 깨우쳐주는 계기를 마련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주구도 한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았다. 정치가들은 각자 자기 민족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한인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8) 한인들의 입지 강화는 미국의 3대 TV 방송의 하나인 ABC-TV에서 저녁의 최고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인 수요일 저녁 8:30분에 한인 가정을 소재로 한 “All American Girl”이라는 프로를 방영하는 것으로도 증명이 된다. 한인 코메디언 마가렛 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 가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한인들은 이 프로그램이 한인 가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혹평을 했다. K. Connie Kang, “Girl Undergoes Major Changes Amid Criticism” Los Angeles Times, March 11, 1995.

9) 이성형 “미국 언론에 비친 재미 한인들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대책” 한미 정책 연구소 주최 재미 한인 사회에 대한 정책 세미나. 로스앤젤레스 동양 선교 교회, 1995년 3월11일.

10) Gary Okihiro, Margins and Mainstream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4.

않았다는 정치적 현실에 한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가 또는 압력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 동안 한인 사회의 중심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하지 않았던가? 한인 사회의 대표기관이라고 자처하던 한인회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병어리의 무기력함을 보였고 단지 영어에 능숙한 2세와 1·5세들이 한인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었다. 정치력 신장은 한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고 한인 정치가를 탄생 시키기 위한 한인들의 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치력 신장이란 한인 정치가를 많이 탄생시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질이 부족한 한인들이 무리하게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한인 사회의 정치력 발전에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을 필요가 있다. 한인 입후보자라고 무조건 지지하는 폐쇄성 민족주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인 사회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한인 정치가의 탄생을 한인 사회는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대부분 이민 1세인 한인 사회는 이민자의 권익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한인 정치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인으로는 최초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김창준 의원은 반 불법 이민법인 주민 발의안 187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주창한 합법 이민자에 대한 각종 사회 복지 혜택을 증진시키는 법안에도 찬성했다. 공화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영주권자들의 경우 응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페이, 프드스텝, 학교 급식, 아동 우유 프로그램 등의 여러 가지 연방 정부에서 주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없애자는 법안이다. 물론, 한인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수 민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법안이다. 미국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한인 이민자들에게 억울하면 미국 시민이 되라는 한인 정치가 김창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준 의원을 같은 한인이기 때문에 계속 지지해야 하는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창준 의원과 같은 정치가는 한인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 한인파 타 소수 민족간의 간격을 넓히고 인종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소수민족 차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김창준 의원 같은 소수민족 출신의 정치가들을 이용하는 것이 미국 보수주의 정당의 생리이다. 부연할 것은 김창준 의원은 “아시아 소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동양계 정치가라는 사실은 같은 동양계 정치가들이 한인들을 가시처럼 보고 있다는 것이 워싱턴에서 들리는 슬픈 소식이다.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면서 백인들의 이익 보호에만 급급한 한인 정치가를 과연 재미 한인 사회가 지지 할 것인지 재고 해야한다.

4·29 폭동은 또한 떨어져가던 1세와 2세간의 간격을 좁히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소위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identity crisis)를 겪으면서 방황하던 2세들에게 코리안 아메리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했다. 폭동으로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심한 인종 차별을 겪고 있으며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1·5세와 2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비로소 코리안 아메리칸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될 수 있으면 한인 사회와 멀리 떨어져 살려고 하던 1·5세와 2세들이 커뮤니티 봉사를 자청하고 1세들과 동참하면서 그들의 삶을 배우려는 노력들이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1세와 2세가 협심하면 한인 사회의 문제를 하나 들씩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4·29 폭동이 한창일 때 젊은 1·5세와 2세들은 평화 대행진을 강행하여 하루만에 100,000명의 대인파가 한인 타운 한복판인 아드모어 공원에 모였다. 결집력이 약하다고 스스로 꾸짖던 한인들, 잘 뭉친다는 일본인과 중국인

들도 이같이 많은 인원을 동원해 본적이 없다. 미 주류 언론은 물론 한인들 스스로도 놀란 대규모 집회였다. 코리안 아메리칸의 금지를 1·5세와 2세들에게 심어 주었고 뭉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 주었다.

4·29 폭동으로 나타난 문제점의 하나는 바로 한인 교회의 무기력함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한인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한인 교회는 동양 선교 교회 등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한인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각 교회마다 자기 교회 교인들을 돕는 일은 했으나 한인 사회의 문제 해결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이민 교회의 사명 의식이 무엇인가? 한인 교회의 거듭남이 요구된다. 한인 사회의 여러 문제점 해결에 한인 교회가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민 사회 없는 한인 교회의 존재는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해외 선교에는 적극적이며 인색하지 않으나 한인 청소년 선도, 자립적인 2세 목회 개척, 사회 사업에는 인색한 한인 이민 교회의 앞날은 과연 밝은가? 도움을 청하는 기관과 단체는 많은데 도움의 손길이 없는 한인 사회의 모습, 이민 교회의 진정한 사명과 책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4·29 폭동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수확은 한인들도 이제는 모국 지향적이고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다민족 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된 점이다. 미국은 다민족 사회이므로 “단일민족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물론, 한국인 또는 재미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것 만이 우수하고 타민족은 멸시하는 태도와 자세는 타민족과의 단절과 갈등을 야기 시킨다. 사이구 폭동 이후 미 주류 사회로의 무작정 동화가 아닌 “공존공생”하여 타민족과 함께 사는 지혜를 습득하려는 한인들의 기본 생활에 큰 변화가 왔다. 흑인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조력이 한인 사회 전체에서 일어났으며, 라틴계, 백인 그 밖의 다른 민족과도 어울려 동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5. 재외 동포의 새로운 역할

IMF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외 동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한다. 특히, 재미 동포들은 모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첫째, 민권단체 조직을 통한 동포 사회의 민권보호, 인권 확립, 정치력 신장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시에 조직력을 통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여 한-미 관계에 일조하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재미 한국인들을 적법적인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참정 민주주의로 선거권이 있고 적극적인 정치력 행사를 하는 조직 및 그룹의 로비 활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만약, 재미 한국인의 정치력이 신장되고 위상이 크게 향상 된다면 미국 연방의회나 상원에서 한-미 간의 입법 처리가 한국에게 불리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유대인 미국인들은 강력한 로비 그룹으로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둘째,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편협 되고 좁은 시각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의 폐쇄

주의적 민족주의관을 개방적 민족주의로 개혁 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LA를 방문한 한국인의 첫 소감이 “하늘이 넓게 보인다”였다. “하늘이 높게 보인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넓게”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시야가 넓어진 느낌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들의 좁고 편협된 시각은 좁은 땅에서 서로 시기와 지나친 경쟁 그리고 이기주의 의식만 고취 시키고 있다. 한국은 의식 개혁을 통한 총체적 개혁이 필요한 국가라고 생각된다. 한국인의 의식 개혁 및 사회 개혁에 재미 한인들이 큰 역할을 해야한다고 믿는다.

셋째, 모국과 해외 동포와의 관계는 집떠난 자식과 친정의 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를 의미한다. 재미 한인들의 위치가 향상되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 재미 한국인의 미국내의 위치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모국의 경제적 어려움에 재미 한인들이 상당한 액수의 송금을 했으며, 외평채 구입, 모국 상품 구입에 앞장 서는등 모국의 경제 회복에 직/간접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모국과 해외 동포와의 상부상조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재미 동포 사회는 한국의 통일에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우선, 냉전의식을 과감히 청산하는데 재미 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제 70/80이 된 이산가족들에게 냉전 논리의 설득력이 없다. 마지막 소원이 가족 상봉이라는 것이 수많은 이산 가족들의 마음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리고 민족의 소원 성취를 빨리 실현 시키는데 재미 한인들이 교류, 공동투자, 그리고 동질성 회복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하루라도 통일을 빨리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

6. 재미 동포 사회의 미래

재미 동포 사회의 미래는 크게 3가지라고 필자는 제안하고 싶다. 이 3가지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재미 한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1·5세/2세들의 문제이다. 그들이 재미 한인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때 재미 한인 사회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둘째, 정치력 신장 문제이다. 재미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 없이 재미 한인 사회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거둬들이 적극 요구된다. 교회의 개혁 없이 밝은 한인 사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한인 1·5/2세들은 미 주류 사회에 동화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나고 있다. 미국 (백인)은 우월하고 그외는 (한국적) 열등하다는 잠재의식을 갖고 자라나고 있다. 그들에게 재미 한국인 (Korean American)의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 시켜주는 것은 한인 1세들이 유산으로 남겨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보람된 사업이다. 1995년 SAT II 한국어가 채택 됐다. 필자는 이 사업을 재미 한인 사회의 미래가 걸린 사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했다. 이것은 단순히 대입 시험에 100점 또는 200점 득점의 기회를 갖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 2세들에게 한국어/문화/ 그리고 Korean American의 자긍심/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업 이었다. 2세들이 한국어/ 문화를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민 역사, 인물사들 접하면서 Korean American의 역사의식을 통한 정체성

확립 그리고 Korean American의 공동체 의식 확립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SAT II 한국어 시험 채택의 중요한 의미이다.

정치력 신장은 재미 한인이 이루어내야 할 숙원이다. 단순히 한인 정치가를 배출하는 것이 한인의 정치력 신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한인 정치가를 많이 배출 시키는 것이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정치력 신장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한인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한인 정치가 탄생이 바람직하지 백인 보수 세력의 방패 역할을 하는 “백인 대변인”의 한인 정치가는 오히려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 필자는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전국적인 민권 단체의 조직이 더욱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한인회는 한인 사회의 대표기관임을 자처하나 주류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항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민권단체가 한인 사회에는 없다. 흑인 또는 유대인 커뮤니티의 경우 흑인/유대인 민권단체들은 흑인/유대인 사회에 불리한 법안/언동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 한인 사회는 전국적인 규모의 민권단체 조직과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 최근 영어권의 젊은 세대 중심으로 동포연합이 구성되고 반이민법 반대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 1세들의 참여와 호응이 부족하여 한인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의 대표성이 결여 되었다. 한인 1세들은 이러한 조직 활동에 적극 호응하고 참여하여 1.5/2세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조언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인 교회의 거듭남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재미 한인의 70% 이상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교회는 한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 교회가 한인 이민 사회에서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교회는 물론 종교 단체이다. 그러나, 교회는 한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개인의 신앙 문제를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여 교회의 거듭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민 교회는 배타성을 과감히 타파하고 “포용성”을 강조해야 한다. 타민족에 대한 포용과 아량이 없는 것이 한인 교회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방식에서 기인한다. 이민 교회는 또한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가장 큰 저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보수주의 교회도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흑인 교회는 바로 흑인 정치력의 근원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철저히 정치를 배척하고 있다. “정치”를 배척하는 것 그 자체도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좋겠다. 또한, 한인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 참여하여 동포 사회의 존경받는 목회자 및 교회가 많이 있어야 밝은 한인 사회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7. 결 론

4·29 폭동은 재미 한인 역사에 영원히 남을 사건이다. 필자는 후세 역사가들은 4·29 폭동을 재미 한인 사회의 전환점 (turning point)이었다고 평가 할 것으로 확신한다. 재미 한인 사

회는 막대한 재산 피해, 정신적 충격 그리고 미 주류 언론의 왜곡 보도등 많은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 한인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방향과 지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값진 교훈도 배웠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4·29 폭동의 교훈을 쉽게 망각하지 말고 한인 사회 미래의 지표로 삼아 열심히 코리안 아메리칸의 새로운 모습을 추구하는 일이다. 확고한 역사 의식을 고취시켜, 코리안 아메리칸의 자아의식을 확립하며, 재미한인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1세, 1·5세, 그리고 2세 모두가 형성하여 한인 사회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미 주류 사회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재미 한인 사회의 미래라고 강조한다.